

“한국은 제2의 일본 아니다” 미국에 경제대변인 역할

The JoongAng Plus

사공일 회고록

경제국정, 이랬다 10

경제수석 비서관 재임 4년여간 나는 국내에서는 가능한 한 대통령의 참모로서 ‘얼굴도, 목소리도’ 없이 뒤에서 경제 국정정에 참여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해외에서나 국내에서도 경제 외교와 경제 국정 전반에 관한 대외 홍보에는 오히려 적극적 역할을 해야 했다.

그 배경은 이렇다. 1980년대 중반 들어 대미통상 마찰이 격화되기 시작했다. 미국 경제는 80년대 초부터 재정과 무역의 쌍둥이 적자로 어려웠다. 게다가 중간선거를 앞둔 85년에는 무역적자가 더 많이 늘어났다. 따라서 미국 내 보호무역주의 분위기는 고조되었고, 당시 미국 의회에는 300여 개의 자국 산업 보호를 내세운 각종 법안이 상정되거나 거론되고 있었다.

한편 미국 조야에서는 미국 경제를 곧 추월할 추세로 따라오는 일본에 대한 경계심이 고조되어 있었다. 이미 79년에 하버드대의 에즈라 보겔 교수의 『재팬 애즈 넘버원』이 출판되어 미국인의 주목을 끌었다. 미국 의회와 미국 여론 주도층은 ‘일본 때리기(Japan

80년대 미국의 ‘일본 때리기’

미국 쌍둥이 적자에 보호무역 강화 “일본 시장 닫고 흑자 내며 무임승차” 한국도 수출 규제, 원화 절상 비상

bashing)’에 나서게 됐다. 일본은 자국 시장은 개방하지 않은 채 무역 흑자만 내는 국제사회의 ‘무임 승차국(free-rider)’으로 몰아붙였다. 85년 9월에는 일본의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기 위해 엔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플라자 합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문제는 이때 미국 의회나 여론 주도층 일각에서 미국의 7대 교역국으로 부상해 반도체와 자동차 대량 수출을 목전에 두고 있는 한국을 ‘제2의 일본’으로 보는 시각이 생기게 된 것이다.

당시 우리 경제의 미국 의존도는 지금보다 훨씬 높았다. 우리의 대미 수출은 전체 수출의 35~40%에 달했다. 제조업 총 고용의 거의 4분의 1이 대미 수출과 직·간접으로 연관돼 있었다. 그런데 83년 5월에 미국의 업계와 노조가 한국산 컬러TV(당시 금성사·삼성전자·대우전자) 덤핑 제소를 했고, 대미 통상 마찰은 격화되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당시 정부 내에는 대비 통상 마찰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도 미비했다.

미국 경제·통상 정책 당국과 의회, 그리고 업계와 언론계는 주요 한·미 간 현안뿐 아니라 한국의 경제 국정 전반에 대해 청와대로 직접 문의해 오는 경우가 잦았다. 대통령 경제수석



사공일 경제수석(왼쪽)이 청와대 사무실에서 외국인 방문객과 면담하고 있다. 작은 사진은 1986년 9월 전두환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오른쪽)을 접견하는 모습. [사진 사공일, 중앙포토]

이 이들을 상대로 사실상의 정부 최고 위 ‘경제 국정 대변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 많은 시간을 요하는 이 업무가 나의 경제수석 업무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다.

무엇보다 먼저 미국 정부와 의회 그리고 여론 주도층에 한국 경제의 현실과 특히 정부의 강한 개방 의지를 제대로 알려야 했다. 86년 당시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1인당 GNP)이 2266달러로, 1만6180달러에 달하는 일본과의 격차가 8배에 달했다. 게다가 일본과는 정반대로 만성 적자국이였다. 대만보다도 1인당 소득이 1000달러 낮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대외 개방과 금융 자유화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려야 했다. 실제로 80년 68.6%던 우리나라의 수입 자율화율을 88년 95.4%까지 끌어올리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미국의 가시적 개방 압력은 결과적으로 한국의 시장개방 자체를 지연시켜 미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외압에 의해 개방한다는 국내 정치 논리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환기해야 했다.

우선 당시 국내에 상주하거나 도쿄나 홍콩에 상주하며 한국 취재를 담당하는 외국 주요 언론 특파원의 면담 요청에 응하고 이들 매체에 기고나 인터뷰를 하는 일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야 했다. 정부 내 책임 있는 고위 정책담당자와 실무 담당자들이 만나주지 않아 이들 해외 주요 언론 매체는 근거가 부족한 오보성 기사를 내게 되고 그 결과 한국 경제의 대외 이미지는 크게 실추될 수 있다.

그에 따른 경제적 타격은 장기간 지속한다. 따라서 이러한 대외 업무는 그때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도 계속해서 중요한 국정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또한 나는 거의 매일 한국을 찾는 외국 언론인, 금융인과 주요국 정책 담당자, 그리고 한국에 거주하는 주

요 외국은행 지점장과 외국기업 대표들과의 면담을 아무리 바쁜 일정 중에도 절대 소홀히 하지 않았다.

마침 86년 11월에는 미국의 예산과 무역·관세 등 경제 통상 관련 입법 활동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미국 하원 세입·세출 위원회(House Ways and Means Committee)의 덴 로스텐 카우스키 위원장이 이끄는 12명의 하원 의원과 다수의 전문위원이 서울을 방문했다. 우리로서는 아주 좋은 기회였다. 그들을 상대로 나는 한국경제 전반에 관한 강연 후 깊이 있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그들은 귀국 후에 한국 경제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내용의 공식 서한도 보내왔다.

흔히 있는 일은 아니지만, 대통령 경제수석 비서관 자격으로 직접 해외에 나가 한국 국정을 알리는 일도 해야 했다. 85년 8월에 미국에서 열렸던 에스편 회의 참석에 이어 86년 12월에는 미국 뉴욕에서 미국 의회 주관으로 개최한 ‘외채와 무역에 관한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이 회의에는 미국의 제임스 베이커 재무장관, 클레이튼 아이터 미국 무역대표, 앨런 그린스펀 대통령 경제자문위원장, 민주당의 빌 브래들리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잭 캠프 하원의원을 포함한 영향력 있는 미 상하의원 다수가 참석했다. 나는 이 회의에서 한국 경험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3세계 외채 해결 방안에 대해 연설했다.

회의 중에는 베이커 재무장관과 비공식 회의도 했다. 내가 회의에 참석한다는 사실을 알고, 베이커 장관이 워싱턴 주미 한국대사(고 김경원 박사)에게 나의 면담을 공식 요청했다. 환율 문제 때문임을 짐작했으나, 나는 기꺼이 만나겠다고 했다. 그러나 주무 장관이 아닌 대통령 보좌관인 만큼, 상호 의견교환 차원의 비공식 면담이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공식 회의로 기록되지 않기 위해 주미대사관은 배석하지 않고, 기록을 위해 주미대사관의 재무관만 배석한다고 통보했다.

회의가 열리고 있던 월드프 아스토리아 호텔에서 데이비드 멀퍼드 차관보,

찰스 달라라 수석부차관보와 함께 베이커 장관을 만났다. 회의에서는 멀퍼드 차관보가 준비해 온 매일매일의 달러·원 환율 추이 자료로 구체적인 원화 절상 수준까지 제시했다. 거기서 나는 “수출을 늘리기 위해 무조건 원화 가치 하락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원화 약세만 고집하다 필요한 기업 구조조정을 실행할 수도 있음을 잘 아는 사람이다.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다. 미국 측 주장을 귀국해서 재무장관께 그대로 전달하겠다”며 회의를 끝냈다. 베이커 장관과의 나의 개인적 인연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또한 나는 회의 중에 이 회의를 주도한 빌 브래들리 상원의원과 조찬을 같이하며, 제3세계 외채 모범국인 한국의 경험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브래들리 의원은 프린스턴 대학 출신으로 미국 NBA 뉴욕 닉스의 스타 농구 선수였다. 그리고 회의 후에는 한국의 정치·경제 현황에 큰 관심을 갖고 있던 헨리 키신저(미국 국무장관 역임) 박사의 초청으



미 의회·언론에 한국경제 홍보 “한국은 일본과 달리 만성 적자국” 대외개방·금융자유화 추진 알려 해외 돌며 베이커 장관 등과 면담

로 그의 사무실에서 차담회도 가졌다. 그리고 미국 정부의 대외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뉴욕 소재 외교위원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에서 강연 후 장시간의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윌리엄 글라이스틴 전 주한 미국 대사 사퇴로 진행된 이 회의에는 케네디 대통령 특별보좌관을 역임한 테드 소렌슨 박사, 로버트 옥스남 아시아 소사이터티 회장, 그리고 존 브레스난 컬럼비아대 교수를 비롯해 한국 경제에 특별한 관심을 가진 미국 동부 지역의 주요 기업인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의 피터 칸 발행인과 노먼 펄스타인 편집위원, 그리고 카렌 하우스 외신부장 등과 만났다. 이들은 나의 KDI 시절부터 각각 도쿄와 홍콩 지부장, 그리고 기자로서 잘 알고 지낸 사이였다. 그래서 더욱 허심탄회한 상호 의견교환을 할 수 있었다. 뉴욕을 떠나기 전에 뉴욕타임스의 경제부와 외신부 기자, 그리고 여론면 담당 기자와의 면담 시간도 가졌다.

귀국길에는 남캘리포니아 지역 기업인들을 위해 월드 어페어스 위원회에서도 강연을 했다. 100여 명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뤘다. 그리고 귀국 전에는 LA 타임스의 국제부장, 국제부 원로 기자, 논설위원 등과의 면담을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쳤다.

정말 바쁜 10일간의 일정이었다. 그러나 내가 원한 모든 일을 다 마치고 귀국할 수 있어 다행이었다.

한국 정부의 경제 개방 기초를 설명하는 86년 6월 뉴스위크 인터뷰.



스마트폰 카메라 앱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The JoongAng Plus에서 연재 중인 사공일 회고록: 경제국정, 이랬다 시리즈를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